

方有執의 『傷寒論條辨』條文 구성에 대한 考察

¹慶熙大學校 一般大學院 基礎韓醫科學科 · ²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安鎮熹^{1, 2} · 金惠一² · 丁彰炫² · 張祐彰² · 白裕相² *

A Study on the Composition of *Shanghanluntiaobian*(傷寒論條辨)

Ahn Jin-hee^{1, 2} · Kim Hye-il² · Jeong Chang-hyun²
Jang Woo-chang² · Baik You-sang² *

¹Dept. of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hee University

²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thod of setting up logic and estimate Fang Youzhi's work through *Shanghanluntiaobian*.

Methods : Wang Shuhe's old edition *Shanghanlun* and Fang Youzhi's *Shanghanluntiaobian* were compared and several essential provisions were analyzed and addressed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Fang Youzhi's revising old edition *Shanghanlun* mixed bamboo tablets.

Results : Fang Youzhi's changing Bianmaifa(「辨脈法」) and Pingmaifa(「平脈法」) and placement Bianchishiyemaizhengbingzhi chapter after Liujiangbingmaizhengbingzhi for discriminating convulsion·dampness·summer heat stroke from febrile diseases is appropriate. Fang Youzhi's deletion Shanghanli(「傷寒例」) chapter that has a guiding characteristics shows his editorial policy. Fang Youzhi's addition Bianwenbingfengwenzabingmaizhengbingzhi chapter is for discriminating febrile disease from epidemic febrile disease·wind warmth syndrome·miscellaneous disease and it indicates *Shanghanlun* is a book of treatment after differentiation of syndromes containing epidemic febrile disease and miscellaneous disease. Through Fang Youzhi's revising method I can see several positive aspects. First he tried to refine the logic of the content of *Shanghanlun* and accord with an actual situation. Second he shows *Shanghanlun* is a book of treatment after differentiation of syndromes containing epidemic febrile disease and miscellaneous disease and tried to see *Shanghanlun* clearly. A criticism of the Preserving Old Edition *Shanghanlun* group could interrupt flexibility and creative thinking reading *Shanghanlun* and a criticism to the Sangangdingli Principles of the several exegetists is a productive criticism because medicine treats human being so it cannot be completed by a logic.

Conclusions : All of these processes are Fang Youzhi's endeavour for strengthening the system and logicity of the old edition *Shanghanlun* and it is meaningful to show a method to read *Shanghanlun* to beginners.

Key Words : *Shanghanlun*(傷寒論), *Shanghanluntiaobian*(傷寒論條辨), *Sangangdingli*(三綱鼎立) principles, Fang Youzhi(方有執)

I. 序 論

『傷寒論』은 東漢 末年에 저술되었으나, 原書가 亡失되어 그 후 王叔和의 정리과정을 거쳐 후세에 전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정리과정에서 王叔和 本人의 견해가 덧붙여져 原文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고, 유과간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傷寒論』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하여 여러 醫家들이 『傷寒論』의 편제를 새롭게 구성하려는 시도가 있었다¹⁾. 이 가운데 대표적으로 明代의 方有執은 『傷寒論』의 條理가 일관되지 않은 것이 王叔和의 편집과 成無己의 주석 작업 등 후인들의 改變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그 본래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되찾기 위해 소위 錯簡重訂의 방법을 통하여 『傷寒論條辨』을 편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 대하여 여러 諸家의 견해가 분분하다.

이에 方有執이 어떠한 방법으로 錯簡重訂을 하여 『傷寒論條辨』의 조문을 구성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러한 구성이 얼마나 합리적인가를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주요 기존 연구로 중국에는

方有執의 錯簡重訂의 내용을 다룬 연구²⁾, 『傷寒論條辨』의 몇 가지 학술적인 문제를 다룬 연구³⁾, 方有執의 학술사상이 후세에 미친 영향을 다룬 연구⁴⁾ 등이 있었다. 국내에는 方有執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없고, 方有執과 관련된 三綱鼎立에 대한 연구가 일부 있을 뿐이다⁵⁾. 그러나 기존의 연구 성과들은 단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傷寒論』과 『傷寒論條辨』의 목록을 비교하거나, 미시적인 관점에서 條文의 변동을 살핀 것으로, 方有執의 錯簡重訂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그 장점과 단점을 총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王叔和가 편집한 『傷寒論』과 方有執이 편찬한 『傷寒論條辨』의 목록을 비교한 후, 그 錯簡重訂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方有執의 錯簡重訂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方有執이 기존 『傷寒論』으로부터 『傷寒論條辨』의 條理를 어떻게 나름대로 세워 나갔는지의 방법론을 살펴볼 수 있으며, 그러한 『傷寒論』 조문의 재구성이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성과는 향후 『傷寒論』의 본래 모습 복원에 대한 학계의 논란을 해결하는 데에 기초적인 기여가 될 수 있으며, 『傷寒論』을 교육하고 학습하는 방면에서 六經病 체계를 인식하고 그 의미를

* Corresponding Author : Baik You-sang,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Korea.

Tel : +82-2-961-0326, Fax : +82-2-961-9229

Email : baikys@khu.ac.kr

Received(5 January 2016), Revised(16 February 2016),

Accepted(17 February 2016).

* 본 연구는 2011년도 경희대학교 연구비지원에 의한 결과임 (KHU-20111097)

1) 이러한 일군의 학파를 錯簡重訂派라고 하는데, 錯簡重訂派에는 方有執 외에도 喻昌, 張璐, 程應旆, 周揚俊, 沈明宗, 舒詔, 吳儀洛, 高學山, 吳謙, 魏荔彤 등이 있다. 殷哲致. 傷寒溫病學史略. 대전. 주민출판사. 2007. pp.126-136.

2) 楊運高. 方有執是怎样錯簡重訂的. 中醫藥學報. 1988. 2. pp.5-7.

3) 沈敏南. 略論『傷寒論條辨』. 廣西中醫藥. 1983. pp.11-13.

4) 卓群. 方有執與『傷寒論條辨』. 天津中醫學院學報. 1984. pp.39-40.

5) 張祐彰. 三綱鼎立 論爭에 대한 소고. 대한한의학회지. 2006. 19(2). pp.108-114.

파악하는 데에 간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本 論

1. 『傷寒論』과 『傷寒論條辨』의 편제 비교

方有執은 王叔和가 편집한 『傷寒論』이 顛倒錯亂하기 때문에 그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傷寒論條辨』을 지었는데, 王叔和가 편집한 기존 『傷寒論』의 편제와 方有執이 편찬한 『傷寒論條辨』의 편제를 비교하기 위해 각각의 목록을 표(Table 1.)로 작성하였다.

Table 1. Comparison of table of contents between Wang Shuhe's old edition *Shanghanlun* and Fang Youzhi's *Shanghanluntiaobian*

王叔和가 편집한 『傷寒論』 목록6)	方有執이 편찬한 『傷寒論條辨』 목록7)
제1권 제1편 辨脈法 제2편 平脈法	傷寒論條辨序 傷寒論條辨前序 傷寒論條辨引 陽病在表之圖 陰病在裏之圖 陽病陰病圖說 제1권 辨太陽病脈證并治上篇
제2권 제3편 傷寒例 제4편 辨症濕喝脈證 제5편 辨太陽病脈證并治法上	제2권 辨太陽病脈證并治中篇
제3권 제6편 辨太陽病脈證并治法中	제3권 辨太陽病脈證并治下篇
제4권 제7편 辨太陽病脈證并治法下	제4권 辨陽明病脈證并治 辨少陽病脈證并治
제5권 제8편 辨陽明病脈證并治法 제9편 辨少陽病脈證并治法	제5권 辨太陰病脈證并治 辨少陰病脈證并治 辨厥陰病脈證并治
제6권 제10편 辨太陰病脈證并治法 제11편 辨少陰病脈證并治法 제12편 辨厥陰病脈證并治法	제6권 辨溫病風濕雜病脈證并治 辨霍亂病脈證并治 辨陰陽易差後勞復脈證并治
제7권 제13편	제7권

辨霍亂病脈證并治法 제14편 辨陰陽易差後勞復病脈證并治法 제15편 辨不可發汗病脈證并治法 제16편 辨可發汗病脈證并治法	辨症濕喝病證 辨脈法上篇 辨脈法下篇
제8권 제17편 辨發汗後病脈證并治法 제18편 辨不可吐 제19편 辨可吐	제8권 辨不可發汗病脈證并治 辨可發汗病脈證并治 辨發汗後病脈證并治 辨不可吐病脈證并治 辨可吐病脈證并治 辨不可下病脈證并治 辨可下病脈證并治 辨發汗吐下後脈證并治 附廬山劉復眞脈訣捷要 嚴三點捷法 神聖工巧括 創傷寒例 傷寒論條辨跋 傷寒論條辨本草鈔 傷寒論條辨或問 痙書序 痙書 痙書或問 痙書跋 傷寒論條辨後序
제9권 제20편 辨不可下病脈證并治法 제21편 辨可下病脈證并治法	
제10권 제22편 辨發汗吐下後脈證并治法	

표의 목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六經病脈證并治를 중심으로 앞뒤에 있던 편제가 변화하였는데 그 변화를 상세히 살펴보면 첫째, 王叔和가 편집한 『傷寒論』의 목록에서는 「辨脈法」과 「平脈法」이 각 六經病의 脈證并治 앞에 있었는데, 方有執은 이를 六經病脈證并治 뒤쪽에 배치하였다. 둘째, 王叔和 편집의 『傷寒論』에서는 「傷寒例」를 六經病脈證并治 앞에 두었는데, 方有執은 「傷寒例」를 仲景의 말이 아니라 후인의 僞書로 보고 僞書는 실을 수 없으며 응당 삭제

6) 陳大舜, 曾勇, 黃政德 編. 孟雄在 외 9人 譯. 各家學說. 서울. 대성의학사. 2001. pp.60-61.

7) 方有執. 傷寒論條辨(中國醫學大成續集 25).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p.1-5.

해야 한다⁸⁾고 보고 삭제하였다. 대신 제8권 뒤에 「削傷寒例」 항목을 두어 「傷寒例」를 삭제하게 된 연유를 설명하였고, 후인들이 그 연유를 살필 수 있게 하였다. 셋째, 王叔和 편집의 『傷寒論』에서는 「辨瘧濕喝脈證」을 六經病脈證并治 앞에 두었는데, 方有執은 이를 六經病脈證并治 뒤쪽에 배치하였다. 넷째, 王叔和가 사용한 「六經病」, 「霍亂病」, 「陰陽易」, 「不可脈證并治」의 편명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내용에 있어서 조문들 간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문들을 배치하였고, 특히 太陽病篇의 上中下는 風傷衛, 寒傷營, 風寒兩傷營衛 즉 三綱鼎立이라는 綱領을 기준으로 조문들을 재배치하였다. 다섯째, 王叔和 편집의 『傷寒論』에는 없었던 「辨溫病風溫雜病脈證并治」를 새로이 설정하여 傷寒 외에 溫病·風溫 및 眞寒假熱·眞熱假寒·宿食 등의 雜病을 다루었다.

2. 『傷寒論條辨』錯簡重訂의 內容

方有執은 王叔和 편집의 『傷寒論』이 錯簡되었다고 인식한 뒤, 『傷寒論』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 『傷寒論條辨』을 썼다. 이와 같이 方有執은 기존 『傷寒論』의 조문을 본인이 세운 條理에 따라 다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조문을 이동, 추가, 삭제, 합병, 분리하였다. 다음은 조문 변화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살펴본 것이다.

1) 條文의 이동

方有執은 기존 『傷寒論』의 조문을 본인이 세운 條理에 따라 다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이 篇에 소속되어 있던 조문을 저 篇으로 이동시키거나, 한 篇 내에서 앞뒤의 위치를 서로 바꾸는 등 조문의 원래 순서를 조정하였고, 특히 太陽病篇은 三綱鼎立을 기준으로 조문들을 재배치했는데 조문 이동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011. 病人身大熱, 反欲得衣者, 熱在皮膚, 寒在骨

髓也. 身大寒, 反不欲近衣者, 寒在皮膚, 熱在骨髓也.⁹⁾

(「辨溫病風溫雜病脈證并治」 七) 病人身大熱, 反欲得近衣者, 熱在皮膚, 寒在骨髓也. 身大寒反不欲衣者, 寒在皮膚, 熱在骨髓也.¹⁰⁾

王叔和가 편찬한 『傷寒論』에는 이 조문이 「辨太陽病脈證并治上篇」 11번째에 위치하였는데, 方有執은 溫病, 風溫, 雜病을 다룬 조문들을 따로 묶은 「辨溫病風溫雜病脈證并治」 속에 위치시켰다. 王叔和가 편찬한 『傷寒論』에는 10조 “風家表解而不了了者, 十二日愈.” 문장 다음에 11조 “病人身大熱, … 熱在骨髓也.” 문장이 나와 문장 상호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方有執은 11조 “病人身大熱, … 熱在骨髓也.” 문장을 「辨溫病風溫雜病脈證并治」에 배치하였다. 11조 조문은 眞寒假熱證과 眞熱假寒證을 다룬 조문으로 方有執이 「辨溫病風溫雜病脈證并治」에서 이 조문들을 따로 다룬 것은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王叔和가 편찬한 『傷寒論』에서는 10조와 11조 사이의 연관성이 떨어지는데, 方有執이 『傷寒論』내의 雜病類들을 따로 모아서 다루되 신체의 寒熱과 관련한 조문들을 다룬 조문들 가운데에 이 조문을 배치함으로써 조문과 조문사이의 연계성을 높였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傷寒論』 조문들을 좀더 계통적으로 파악하려는 方有執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331. 傷寒先厥, 後發熱而利者, 必自止, 見厥復利.¹¹⁾

332. 傷寒始發熱六日, 厥反九日而利. 凡厥利者, 當不能食, 今反能食者, 恐爲除中. 食以索餅, 不發熱者, 知胃氣尚在, 必愈, 恐暴熱來出而復去也. 後日脈之, 其熱續在者, 期之旦日夜半愈. 所以然者, 本發熱

8) 方有執. 傷寒論條辨(中國醫學大成續集 25).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p.409-410. “豈仲景之言, 其爲後人之僞, 明亦甚矣.”, “僞不容有, 無之可也, 既應無之, 削之是矣, 故從削.”

9) 南京中醫學院 編著. 傷寒論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2. p.327. 『傷寒論譯釋』의 본문은 본래 簡體字로 되어 있으나, 可讀性的 편의를 위해 繁體字로 바꾸었다.

10) 方有執. 傷寒論條辨(中國醫學大成續集 25).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283.

11) 南京中醫學院 編著. 傷寒論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2. p.1029.

六日，厥反九日，復發熱三日，并前六日，亦爲九日，與厥相應，故期之旦日夜半愈。後三日脈之，而脈數，其熱不罷者，此爲熱氣有餘，必發癰膿也。¹²⁾

333. 傷寒，脈遲六七日，而反與黃芩湯徹其熱，脈遲爲寒，今與黃芩湯，復除其熱，腹中應冷，當不能食，今反能食，此名除中，必死。¹³⁾

〔辨厥陰病脈證并治〕六) 傷寒，脈遲六七日，而反與黃芩湯徹其熱，脈遲爲寒，今與黃芩湯，復除其熱，腹中應冷，當不能食，今反能食，此名除中，必死。¹⁴⁾

〔辨厥陰病脈證并治〕七) 傷寒始發熱六日，厥反九日而利。凡厥利者，當不能食，今反能食者，恐爲除中。食以索餅，不發熱者，知胃氣尚在，必愈，恐暴熱來出而復去也。後日脈之，其熱續在者，期之旦日夜半愈。所以然者，本發熱六日，厥反九日，復發熱三日，并前六日，亦爲九日，與厥相應，故期之旦日夜半愈。後三日脈之，而脈數，其熱不罷者，此爲熱氣有餘，必發癰膿也。¹⁵⁾

〔辨厥陰病脈證并治〕八) 傷寒先厥，後發熱而利者，必自止，見厥復利。¹⁶⁾

王叔和가 편찬한 『傷寒論』에는 331조 “傷寒先厥，… 見厥復利.”문장 다음에 332조 “傷寒始發熱六日，… 必發癰膿也.”문장과 333조 “傷寒脈遲六七日，… 此名除中必死.”문장이 나오는데, 方有執은 이를 333조, 332조, 331조 순서로 逆제배치하였다. 그 의도를 고찰해보면 333조 문장 내에서 除中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32조에서는 용어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恐爲除中’이라고 했는데, 333조에서는 胃氣가 망가져 끊어져 가는 때에 도리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除中의 定義와 病機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

에, 方有執은 333조를 332조보다 먼저 배치한 것으로 생각된다. 方有執은 333조에서 除中의 정의와 병기를 설명한 뒤, 332조에서는 發熱했다가 厥症이 나타나면서 除中이 의심되는 증상과 진짜 除中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는 방법, 厥과 熱의 시간이 같으면 음양이 평형을 이루어 낮게 됨과 發熱이 계속되면 熱勝하여 癰膿이 발생함에 대하여 말하였고, 331조에서는 332조에서 先熱後厥했던 것과 반대되는 先厥後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증상을 설명하면서 先厥後熱하면 결국 陽氣가 점차로 회복되므로 下利가 멈추게 되고, 厥症이 나타나면 다시 下利함을 말했다. 方有執이 王叔和가 편찬한 『傷寒論』에는 331조→332조→333조의 순서로 되어 있던 것을 逆제배치한 것은 이러한 흐름이 『辨厥陰病脈證并治』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太陽病，發熱，汗出，惡風，脈緩者，名爲中風。¹⁷⁾

3. 太陽病，或已發熱，或未發熱，必惡寒，體痛嘔逆，脈陰陽俱緊者，名爲傷寒。¹⁸⁾

38. 太陽中風 脈浮緊，發熱惡寒，身疼痛，不汗出而煩躁者，大青龍湯主之。若脈微弱，汗出惡風者，不可服之，服之則厥逆，筋惕肉瞤，此爲逆也。¹⁹⁾

〔辨太陽病脈證并治上〕二) 太陽病，發熱，汗出，惡風，脈緩者，名爲中風。²⁰⁾

〔辨太陽病脈證并治中〕一) 太陽病，或已發熱，或未發熱，必惡寒，體痛嘔逆，脈陰陽俱緊者，名曰傷寒。²¹⁾

〔辨太陽病脈證并治下〕一) 太陽中風 脈浮緊，發熱惡寒，身疼痛，不汗出而煩躁者，大青龍湯主之。

12) 南京中醫學院 編者. 傷寒論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2. p.1031.

13) 南京中醫學院 編者. 傷寒論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2. pp.1034-1035.

14) 方有執. 傷寒論條辨(中國醫學大成續集 25).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253.

15) 方有執. 傷寒論條辨(中國醫學大成續集 25).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254.

16) 方有執. 傷寒論條辨(中國醫學大成續集 25).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255.

17) 南京中醫學院 編者. 傷寒論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2. p.305.

18) 南京中醫學院 編者. 傷寒論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2. p.307.

19) 南京中醫學院 編者. 傷寒論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2. p.402.

20) 方有執. 傷寒論條辨(中國醫學大成續集 25).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15.

21) 方有執. 傷寒論條辨(中國醫學大成續集 25).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80.

若脈浮弱，汗出惡風者，不可服，服之則厥逆，筋惕肉瞤，此爲逆也，以眞武湯救之。²²⁾

方有執은 특징적으로 六經病 中 太陽病篇을 편집할 때 風傷衛，寒傷營，風寒兩傷營衛 즉 三綱鼎立이라는 綱領을 기준으로 조문들을 재배치했다. 따라서 2조 “太陽病，… 名爲中風.”의 문장을 衛가 風邪에 적중되어 병이 된 조문들을 다루는 「辨太陽病脈證并治上篇」중 二에 배치하고, 3조 “傷陽病，… 名爲傷寒.”²³⁾의 문장을 營이 寒邪에 傷하여 병이 된 조문들을 다루는 「辨太陽病脈證并治中篇」중 一에 재배치했으며, 38조 “太陽中風，… 此爲逆也.”²⁴⁾의 문장을 營衛가 風寒邪에 傷하여 병이 된 조문들을 다루는 「辨太陽病脈證并治下篇」중 一에 재배치했다. 원래 3조와 38조는 王叔和가 편찬한 舊本 『傷寒論』에서 각각 「辨太陽病脈證并治上篇」과 「辨太陽病脈證并治中篇」에 있었는데, 方有執은 三綱鼎立이라는 綱領을 기준으로 太陽病篇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조문을 이동시켰다.

2) 條文的 추가

方有執은 『傷寒論』 조문에 근거하여 조문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기도 하였는데, 조문 추가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038. 太陽中風 脈浮緊，發熱惡寒，身疼痛，不汗出而煩躁者，大青龍湯主之。若脈微弱，汗出惡風者，不可服之。服之則厥逆，筋惕肉瞤，此爲逆也。²⁵⁾

(「辨太陽病脈證并治下」 一) 太陽中風 脈浮緊，發熱惡寒，身疼痛，不汗出而煩躁者，大青龍湯主之。若脈浮弱，汗出惡風者，不可服。服之則厥逆，筋惕肉瞤，此爲逆也。以眞武湯救之。²⁶⁾

이 조문은 脈이 미약하고 汗이 나며 惡風하는 사람은 大靑龍湯을 복용할 수 없고, 만약 복용하면 厥逆하고 筋惕肉瞤하는데, 方有執은 黃仲理를 따라 眞武湯으로써 救한다는 여섯 글자를 추가함으로써 『傷寒論』 85조 “太陽病發汗，汗出不解，其人仍發熱，心下悸，頭眩，身瞤動，振振欲擗地者，眞武湯主之.”문장과 的 連계성을 높였으며, 조문의 의미를 분명히 하였다.

3) 條文的 삭제

方有執은 조문 내용을 순조롭게 하기 위하여 삭제하기도 했는데, 조문 삭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14. 太陽病，以火熏之，不得汗，其人必躁，到經不解，必清血，名爲火邪。²⁷⁾

(「辨太陽病脈證并治上」 二十九) 太陽病，以火熏之，不得汗，其人必躁，到不解，必清血，名爲火邪。²⁸⁾

이 조문은 太陽病에 火熏의 방법으로써 발한시키려 하였으나 汗은 나지 않고 變조하며 陰絡을 상하여 便血하게 된 과정을 설명한 조문이다²⁹⁾. 기준에 成無己는 ‘到經不解’에 대하여 6일이면 傳經이 다하고 7일째에 太陽經에 다시 이르렀는데도 邪氣가 풀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해석을 했는데³⁰⁾, 方有執은 과감하게 ‘到經不解’에서 ‘經’자를 삭제하고, ‘到’자를 ‘이르다’의 의미가 아니라, ‘도리어’의 의미로 해석하여 용렬한 의사들이 火熏法으로써 汗을 내어 사기를 풀려고 했으나, 환자가 躁擾하는 등 邪氣는 도리어 풀리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이는 方有執이 경전에 얽매어 억지 해석을 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현실의 환자 정

22) 方有執. 傷寒論條辨(中國醫學大成續集 25).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132.

23) 南京中醫學院 編著. 傷寒論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2. p.307.

24) 南京中醫學院 編著. 傷寒論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2. p.402.

25) 南京中醫學院 編著. 傷寒論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2. p.402.

26) 方有執. 傷寒論條辨(中國醫學大成續集 25).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132.

27) 南京中醫學院 編著. 傷寒論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2. p.585.

28) 方有執. 傷寒論條辨(中國醫學大成續集 25).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42.

29) 文濬典 외 6人 編. 傷寒論精解. 서울. 慶熙大學校出版局. 2000. p.256.

30) 楊運高. 方有執是怎样錯簡重訂的. 中醫藥學報. 1988. 2. p.6.

황에 기인하여 仲景의 조문을 해석하려고 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4) 條文의 합병

方有執은 두 개의 조문을合併하여 하나의 조문처럼 다루기도 하였는데, 조문의 내용이 연관성이 높을 경우 조문을 분리하여 따로 다루는 것보다는 하나의 조문 내에서 다루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조문 합병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021. 太陽病，下之後，脈促胸滿者，桂枝去芍藥湯主之.³¹⁾

022. 若微寒者，桂枝去芍藥加附子湯主之.³²⁾

(『辨太陽病脈證并治上』 三十八) 太陽病，下之後，脈促胸滿者，桂枝去芍藥湯主之。若微惡寒者，去芍藥方中加附子湯主之.³³⁾

王叔和가 편찬한 『傷寒論』에서는 21번과 22번 조문을 따로 따로 다루었는데, 方有執은 「辨太陽病脈證并治上篇」 중간부분에서 하나의 조문으로 묶어서 다루었다. 21번 조문은 太陽病에 下法을 잘못 사용하여 表邪가 內陷해서 脈促胸滿의 증상이 나타날 때 桂枝去芍藥湯을 사용한 조문이고, 22번 조문은 이 증상에 약간 惡寒의 증세가 나타나면 桂枝去芍藥湯에 附子를 가미한 桂枝去芍藥加附子湯을 사용한 조문으로 두 조문을 분리시켜서 다루는 것보다 한 조문 내에서 다루면 증상의 미미한 변화에 따라 약물을 어떻게 가감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28. 問曰：病有結胸，有藏結，其狀何如？答曰：按之痛，寸脈浮，關脈沈，名曰結胸也.³⁴⁾

129. 何謂藏結？答曰：如結胸狀，飲食如故，時時

下利，寸脈浮，關脈小細沈緊，名曰藏結。舌上白胎滑者，難治。³⁵⁾

(『辨太陽病脈證并治下』 二十七) 問曰病有結胸，有藏結，其狀何如？答曰按之痛，寸脈浮，關脈沉，名曰結胸也。何謂藏結？答曰如結胸狀，飲食如故，時時下利，寸脈浮，關脈小細沈緊，名曰藏結。舌上白胎滑者難治。³⁶⁾

또한 王叔和가 편찬한 『傷寒論』에서는 128번 조문과 129번 조문을 따로 따로 다루었는데, 方有執은 「辨太陽病脈證并治下篇」에서 하나의 조문으로 묶어서 다루었다. 128번 조문은 結胸을 다룬 조문이고, 129번 조문은 藏結을 다룬 조문인데, 128번 조문에서 結胸과 藏結의 나타나는 상태 어떠한가를 물었으므로, 따로 따로 나누어 다루기보다 한 조문 내에서 다루는 것이 文義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5) 條文의 분리

方有執은 한 개의 조문을 두 개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따로 다루기도 했는데, 이는 조문의 앞내용과 뒷내용이 연관성이 떨어지거나, 각각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문 분리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016. 太陽病三日，已發汗，若吐若下若溫鍼，仍不解者，此爲壞病，桂枝不中與之也。觀其脈證，知犯何逆，隨證治之。桂枝本爲解肌，若其人脈浮緊，發熱汗不出者，不可與之也。常須識此，勿令誤也。³⁷⁾

(『辨太陽病脈證并治上』 五十二) 太陽病三日，已發汗，若吐若下若溫鍼，仍不解者，此爲壞病，桂枝不中與也。觀其脈證，知犯何逆，隨證治之。³⁸⁾

(『辨太陽病脈證并治上』 四) 桂枝本爲解肌，若其人脈浮緊，發熱汗不出者，不可與也。常須識此，勿令

31) 南京中醫學院 編者. 傷寒論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2. p.352.

32) 南京中醫學院 編者. 傷寒論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2. p.352.

33) 方有執. 傷寒論條辨(中國醫學大成續集 25).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51.

34) 南京中醫學院 編者. 傷寒論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2. p.617.

35) 南京中醫學院 編者. 傷寒論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2. p.618.

36) 方有執. 傷寒論條辨(中國醫學大成續集 25).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159.

37) 南京中醫學院 編者. 傷寒論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2. p.342.

38) 方有執. 傷寒論條辨(中國醫學大成續集 25).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62.

誤也.³⁹⁾

方有執은 16조 “太陽病三日, … 隨證治之.”의 조문 내용을 분리하여, “太陽病三日, … 隨證治之.”의 내용은 「辨太陽病脈證并治上篇」 뒷부분에서 다루었고, 후반부의 “桂枝本爲解肌, … 勿令誤也.”는 「辨太陽病脈證并治上篇」 앞부분에서 다루었다. 方有執은 「辨太陽病脈證并治上篇」의 앞부분에서 桂枝湯의 적응증과 관련된 조문들을 다루면서 네 번째에서 桂枝湯의 금기증을 말하기 위하여, 특히 땀이 나지 않는 傷寒의 경우에 桂枝湯을 써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桂枝本爲解肌, … 勿令誤也.”를 분리하여 이곳에 위치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 뒤에는 桂枝湯을 복용한 뒤에 타하거나 평상시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은 桂枝湯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조문들이 이어지는데 “桂枝本爲解肌, … 勿令誤也.”를 이 조문들 앞에 배치함으로써 桂枝湯의 적응증을 잘 기억해서 실수하는 일이 없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16조 조문 내용 중 앞부분의 “太陽病三日, … 隨證治之.”는, 太陽病이 들었을 때 汗吐下三法和 溫鍼의 방법을 사용해도 邪氣가 풀리지 않아 壞病이 되었을 때 桂枝湯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脈證을 보고 證에 따라 치료해야 함을 강조한 구절로 方有執은 「辨太陽病脈證并治上篇」 뒷부분 중 太陽病이 아직 풀리지 않아 발생한 變證과 관련된 조문 모음에 이를 배치시켰다. 方有執이 16조 조문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을 분리하여 각각 따로 배치시킨 것은 太陽病 관련 조문들을 좀 더 條理있게 파악하고자 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3. 錯簡重訂의 긍정적 측면

지금까지 顛倒錯亂된 『傷寒論』의 본 모습을 되찾기 위해 노력한 方有執의 작업을 『傷寒論』과 『傷寒論條辨』의 목록 비교 및 方有執의 錯簡重訂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문의 이동, 추가, 삭제, 합병, 분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목록 비교를 통해서 첫째, 王叔和가 편집한 『傷寒論』의 목

록에서는 「辨脈法」과 「平脈法」이 각 六經病의 脈證并治 앞에 있었는데, 方有執은 이를 六經病脈證并治 뒤쪽에 배치하였다. 이는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부분을 먼저 배치하려는 方有執의 의도라고 판단된다. 脈法의 순서도 기존 『傷寒論』에서는 「辨脈法」 다음에 「平脈法」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方有執은 두 篇名の 순서를 서로 바꿔서 배치하고 또 篇名도 「辨脈法」은 「辨脈法下篇」으로 「平脈法」은 「辨脈法上篇」으로 바꿨다. 이는 일반적인 상황이나 원칙을 먼저 설명한 뒤에 구체적이거나 세부적인 것을 말하는 방식으로 편제를 구성한 것으로서 그 편제 구성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篇名을 바꾼 것도 내용의 연속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王叔和 편집의 『傷寒論』에서는 「傷寒例」를 六經病脈證并治 앞에 두었는데, 方有執은 「傷寒例」를 仲景의 말이 아니라 후인의 僞書로 보고 僞書는 실을 수 없으며 응당 삭제해야 한다고 보고 삭제하였다. 대신 제8권 뒤에 「削傷寒例」 항목을 두어 「傷寒例」를 삭제하게 된 연유를 설명하였고, 후인들이 그 연유를 살필 수 있게 하였다. 「傷寒例」는 春夏秋冬 四時 기후변화에 따른 外感熱病의 발생과 분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傷寒論』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글이지만, 方有執이 후인들의 僞書로 판단하여 삭제한 것은 仲景의 글을 중심으로 『傷寒論』의 條理를 잡아나갔다는 方有執의 편집방침을 엿볼 수 있는 일면이다. 셋째, 王叔和 편집의 『傷寒論』에서는 「辨瘧濕喝脈證」을 六經病脈證并治 앞에 두었는데, 方有執은 이를 六經病脈證并治 뒤쪽에 배치하였다. 「辨瘧濕喝病證」은 본래 『金匱要略·辨瘧濕喝病脈證治』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 병증이 傷寒의 병증과 유사하여 변별을 요하는데, 方有執이 이를 王叔和 편집의 『傷寒論』과 다르게 六經病脈證并治 뒤쪽에 배치한 것은 그 先後를 잘 분별한 적절한 배치로 보인다. 넷째, 王叔和가 사용한 六經病, 霍亂病, 陰陽易, 可不可脈證并治의 편명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내용에 있어서 조문들 간의 연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문들을 배치하였고, 특히 太陽病篇의 上中下는 風傷衛, 寒傷營, 風寒兩傷營衛 즉 三綱鼎立이라는 綱領을 기준으로 조문들을 재배치하였다. 이는 方有執이 조리

39) 方有執. 傷寒論條辨(中國醫學大成續集 25).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20.

정연하지 않은 『傷寒論』을 三綱鼎立을 기준으로 條理를 세운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것으로 그 의의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王叔和 편집의 『傷寒論』에는 없었던 「辨溫病風溫雜病脈證并治」를 새로이 설정하여 傷寒 외에 溫病·風溫 및 眞寒假熱·眞熱假寒·宿食 등의 雜病을 다루었다. 이는 溫病 및 雜病을 傷寒과 분명하게 구별하면서도 『傷寒論』이 傷寒 외에도 溫病이나 雜病까지 포괄할 수 있는 변증론치 서적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方有執의 적절한 편집이다.

方有執의 錯簡重訂의 내용에서는 첫째로, 조문의 이동예시를 통해서 기존 『傷寒論』에서는 조문 상호간의 연관성이 결여되어 있던 것을 연관성이 더 높은 것들끼리 재배치한 후 필요에 의해 새로운 篇名을 설정한 점, 문장의 흐름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기존 『傷寒論』의 조문을 역배치 하는 등 관련성이 높은 주제를 중심으로 條理를 잡아나가기려는 方有執의 편집태도, 三綱鼎立이라는 綱領을 중심으로 太陽病篇을 재배치한 것의 예시를 볼 수 있었다. 둘째로, 조문의 추가예시를 통해서는 經文에 드러나 있지 않은 내용을 몇 글자를 추가로 더 집어 넣어줌으로써 뚜렷하게 밝혀주어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려는 그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셋째로, 조문의 삭제예시를 통해서는 方有執이 기존 註釋家인 成無己처럼 경전에 얽매어 억지 해석을 하기보다는 현실의 상황에 기인하여 경문을 읽어내려는 그의 실사구시적 태도를 볼 수 있었다. 넷째로, 합병의 예시를 통해서는 기존 『傷寒論』에서는 서로 분리되어 있던 것을 조문의 합병이라는 방법을 통해 조문을 좀 더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려는 그의 태도를 볼 수 있었다. 다섯째로, 조문 분리의 예시를 통해서 한 조문 내에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내용간의 연계성이 떨어지면 연계성이 더 높은 다른 조문들과 함께 모아 살피는 등 조문을 대하는 그의 융통성을 엿볼 수 있었다.

4. 錯簡重訂의 부정적 측면

지금까지 方有執이 王叔和가 편집한 『傷寒論』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傷寒論』의 틀을 다시 구성했

는지에 대해 목록을 비교하고 錯簡重訂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方有執의 이러한 작업이 당시부터 비판을 받은 측면이 있었는데, 아래에서는 方有執의 작업에 대해 비판적인 면을 編次에 대한 비판과 三綱鼎立에 대한 비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錯簡重訂의 編次에 대한 비판

方有執의 주장을 찬성한 사람들은 錯簡重訂派를 형성하였지만, 錯簡重訂을 반대하고 기존 『傷寒論』의 권위를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사람들은 維護舊論派를 형성하였다. 維護舊論派로는 張遂辰, 張志聰, 陳修園 등이 있다⁴⁰⁾. 張遂辰은 “成無己가 경전을 인용하여 뜻을 분석한 것이 더욱 자세하고 합치되며 초학자들이 이것을 버리고 길을 찾을 수 없다. 모두 舊本에 의지하여야 하며 감히 버리거나 취하는 등 취사선택할 수 없다.”⁴¹⁾고 했고, 張志聰은 『傷寒論宗印』의 「凡例」에서 “本經의 章句는 예전부터 條則을 따라서 그 자체로 節目이 되며 章法을 세밀하게 음미해 보면 연관성이 정연해서 실제로 정해진 차례가 있으니, 진실로 죽간이 끊어져 발생한 殘篇이나 叔和가 (임의로) 편차한 것이 아니다.”⁴²⁾라고 했다. 또한 『傷寒論集注』의 「凡例」에서도 “成無己 이후로 本論을 주석하면서 모두 산만하게 서술하고 평이하게 늘어놓아 그 綱領의 뜻을 잃었고 지금에 이르러서도 그 門을 얻지 못한 채 죽간이 끊어져 발생한 殘篇으로 여겨 감히 조문을 찢어놓고 節目을 나누었다. 그러나 原本에 나아가 節目을 모으고 章을 나누어보면 지극히 당연하여 옮길 수 없다.”⁴³⁾고 했다. 마지막으로 陳修園은 『傷寒論淺註』

40) 殷哲玟, 傷寒溫病學史略. 대전. 주민출판사. 2007. p.134.
 41) 張卿子, 張卿子傷寒論(中國醫學大成六).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2. p.4. “仲景之書, 精入無倫, 非善讀, 未免滯於語下, 諸家論述, 各有發明, 而聊攝成氏引經析義, 尤稱詳洽, 雖抵牾附會, 間或時有, 然諸家莫能勝之, 初學不能舍此索途也, 悉依舊本, 不敢去取.”
 42) 張志聰, 傷寒論宗印(張志聰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56. “本經章句, 向循條則, 自爲節目, 細玩章法, 聯貫井然, 實有次第, 信非斷簡殘篇, 叔和之所編次也.”
 43) 張志聰, 傷寒論集注(張志聰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22. “成氏而後, 注釋本論, 悉皆散敘平鋪,

의 「凡例」에서 王叔和의 『傷寒論』 編次를 千古에 功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太陽病脈證篇부터 勞復篇까지 모두 중경의 原文으로 앞뒤가 잘 맞아 들어가므로 감히 한 글자도 增減할 수 없고, 한 구절도 이동시키거나 바꿀 수 없다⁴⁴⁾고 했고, 또한 학문을 하고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經을 수정한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仲景의 原文을 세심하게 체득하고 인식할 것을 당부하였다⁴⁵⁾.

2) 三綱鼎立說에 대한 비판

方有執이 『傷寒論條辨』을 쓸 당시에 太陽病篇의 上中下는 風傷衛, 寒傷營, 風寒兩傷營衛 즉 三綱鼎立이라는 綱領을 기준으로 조문들을 재배치했는데, 方有執을 직간접적으로 비판하면서 三綱鼎立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註家들이 있다. 첫째로, 柯琴은 『傷寒來蘇集』 自序에서 三綱鼎立說이 蛇足이며, 억지스럽고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함이 심해 마치 鄭나라 음악이 雅樂을 혼란하게 하는 것과 같다고 했고, 仲景의 道는 지극히 평이하고 仲景의 門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 三綱鼎立의 학설이 쉬운 길을 막아서고 있어서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⁴⁶⁾. 또한 「凡例」에서는 “『傷寒論

』이 叔和가 編次한 이후로 仲景의 원래 編次는 다시 볼 수 없는데, 비록 章의 次序가 혼란스럽지만 仲景의 進면목을 찾아낼 수 있으며, 方有執과 喻嘉言이 각각 更定하였는데, 그 중 『傷寒論條辨』은 샅된 魔에 걸려두고, 『尚論篇』은 천박한 풍습을 따라 仲景의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⁴⁷⁾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둘째로, 尤在涇은 “桂枝湯은 風이 衛를 傷함을 主하는 것은 옳으나, 麻黃湯은 寒이 營을 傷함을 主한다는 것은 그르다. 자세히 말하면 衛가 병이 들되 營이 병이 들지 않는 경우는 있거니와 營이 병이 들되 衛가 병이 들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⁴⁸⁾고 하였다. 이는 외부 邪氣가 인체를 침입하여 인체 내부로 들어올 때에 皮毛를 거쳐 肌肉을 침입한다는 가정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三綱鼎立은 새로운 설을 자랑하여 옛 글을 변하게 하니 醫道에 있어서 더욱 발전할수록 더욱 멀어지게 된다.”⁴⁹⁾고 비판했다. 셋째로, 張志聰은 病機와 脈象과 治療의 측면에서 三綱鼎立說이 仲景의 본뜻과 어긋남을 구체적인 조문을 들어서 비판하였다⁵⁰⁾⁵¹⁾. 病機의 측면에서는 “虛邪가 사람을 적중하면 오작오작 몸을 움직이고 털이 서며 주리가 열리니 모름지기 風寒은 모두 外邪로써 반드시 먼저 皮毛에 머물렀다가 후에 肌腠로 들어오며, 머물러서 떠나지 않으면 府로 들어오니, 반드시 風傷衛하고 寒傷營한 것은 아니다.”⁵²⁾라고

失其綱領旨趣, 至今不得其門, 視爲斷簡殘篇, 輒取條裂節剖, 然就原本, 而滙節分章, 理明義盡, 至當不移.”

44) 陳修園. (大字斷句)陳修園醫書七十二種.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64. p.608. “叔和編次傷寒論, 有功千古, 增入諸篇, 不書其名, 王安道惜之, 然自辨太陽病脈證篇至勞復止, 皆仲景原文, 其章節起止照應, 王肯堂謂如神龍出沒首尾相顧鱗甲森然, 茲刻不敢增減一字, 移換一節.”

45) 陳修園. (大字斷句)陳修園醫書七十二種.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64. p.608. “成無已註後, 諸家皆有移易, 若陶節菴, 張景岳, 程山齡輩無論矣, 而方中行, 喻嘉言, 程郊倩, 程扶生, 魏念庭, 柯韻伯, 皆有學問有識見之人而敢擅改聖經, 皆由前人謂傷寒論非仲景原文, 先入爲主, 遂於深奧不能解之處, 不自咎其學問之淺, 竟歸咎於叔和編次之非, 遂割章分句, 挪前換後, 以成一篇暢達文字, 如詩家之集李集杜, 雖皆李杜句究竟非李杜詩也, 余願學者, 從仲景原文細心體認方知諸家之互相詆駁者終無一當也.”

46) 柯琴 編撰.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pp.1-2. “三方割據瓜分, 太陽之主寒多風少, 風多寒少, 種種蛇足, 羽翼青龍, 曲成三綱鼎立之說, 巧言黃黃, 洋洋盈耳, 此鄭聲所爲亂雅樂也. 夫仲景之道, 至平至易, 仲景之門, 人人可入, 而使之茅塞如此, 令學人如夜行歧路, 莫之指歸, 不深可憫耶.”

47) 柯琴 編撰.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p.3. “『傷寒論』一書, 自叔和編次後, 仲景原篇不可復見, 雖章次混淆, 猶得尋仲景面目, 方喻輩各爲更定, 『條辨』既中邪魔, 『尚論』浸循陋習矣, 大背仲景之旨.”

48) 尤在涇 注. 傷寒貫珠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p.22. “桂枝主風傷衛則是, 麻黃主寒傷營則非, 蓋有衛病而營不病者矣, 未有營病而衛不病者也.”

49) 尤在涇 注. 傷寒貫珠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p.23. “炫新說而變舊章, 其於斯道, 不愈趨而愈遠哉.”

50) 張志聰은 方有執이 『傷寒論條辨』에서 條理를 세울 때 중시한 三綱鼎立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方有執 이전에 三綱鼎立의 측면에서 바라본 成無已를 비판하였는데, 이는 三綱鼎立 자체를 비판했다는 면에서는 같으므로 삼강정립에 대한 비판에 인용하여 실었음을 밝힌다.

51) 陳大舜, 曾勇, 黃政德 編. 孟雄在 外 9人 譯. 各家學說. 서울. 대성의학사. 2001. pp.606-610.

52) 張志聰. 傷寒論集注(張志聰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20. “虛邪之中人也, 洒淅動形, 起毫毛而發腠理, 須知風寒皆爲外邪, 先客皮毛, 後入肌腠, 留而不去則

했고, 脈象의 측면에서는 “무릇 脈緩하면 風이 되는데, 어찌서 太陽篇에서 傷寒脈이 浮而緩하다고 하고, 陽明篇과 太陰篇에서 傷寒의 脈이 浮而緩하다고 하는가?”⁵³⁾하고, “脈緊하면 寒이 되는데, 어찌서 太陽篇에서 脈緊하면 반드시 咽痛이 있고, 陽明篇에서 脈浮而緊하면 반드시 潮熱이 있다고 하는가?”⁵⁴⁾하면서 “陽邪가 陽을 傷하고, 陰邪가 陰을 傷하여 正邪가 같은 종류로써 둘이 서로 맞서지 않는다면 脈緩하고, 寒邪가 陽을 傷하고 熱邪가 陰을 傷하여 邪正의 陰陽이 서로 부딪히면 脈緊함을 알아야지 마땅히 中風脈緩하고 傷寒脈緊하다고 한 것에 엇매일 필요가 없다.”⁵⁵⁾고 했다. 치료의 측면에서는 “傷寒으로 惡寒無汗한 경우에는 麻黃湯이 마땅하며, 中風으로 有汗惡風한 경우에는 桂枝湯이 마땅하다. 진실로 이와 같은데 어찌서 惡風無汗而喘한데 麻黃湯이 마땅하며 喘而汗出한데 麻杏甘石湯을 쓴다고 하였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風寒兩感으로 營衛가 모두 傷하면 마땅히 大靑龍湯을 써야하지만 이는 오류가 심하다고 하면서 “太陽病으로 項背強几几, 無汗惡風하거나(31조), 傷寒으로 汗出而渴하거나(73조), 傷寒이나 中風, 5,6일(96조), 병을 얻은 지 6, 7일이 되어 脈이 遲하면서 浮弱하고 惡風한 경우(98조), 傷寒으로 發熱하면서 腹滿하고 自汗이 나오는 경우(112조), 婦人이 中風으로 發熱惡寒한 경우(148조), 陽明中風으로 口苦咽乾, 發熱惡寒, 脈浮而緊한 경우(189조), 陽明病으로 脈浮而緊하면서 汗이 나고 惡寒하지 않은 경우(221조), 陽明病으로 汗이 많이 나면서 약간 惡寒이 있는 경우(234조) 등의 증은 예들로써 추측건대 모두 風寒兩感한 것으로서 어찌 大靑龍湯을 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⁵⁶⁾⁵⁷⁾라고 하면서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III. 考察

지금까지 王叔和가 편집한 『傷寒論』과 方有執이 편찬한 『傷寒論條辨』의 목록을 서로 비교하여 方有執이 어떤 식으로 기존의 『傷寒論』 편제를 새롭게 구성했는지 살펴보고, 錯簡重訂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문의 이동, 추가, 삭제, 합병, 분리의 예시를 통해 方有執이 어떻게 『傷寒論』의 條理를 세우 나갔는지와 이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 측면과 비판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편제 구성에 있어서 六經病脈證并治를 중심으로 앞뒤에 있던 편제가 변화하였는데, 王叔和가 편집한 『傷寒論』의 목록에서는 六經病脈證并治 앞에 「辨脈法」, 「平脈法」, 「傷寒例」, 「辨瘧濕喝脈證」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方有執은 「辨脈法」, 「平脈法」, 「辨瘧濕喝脈證」을 합치고 이를 六經病脈證并治 뒤쪽 卷之七에 배치되되 그 순서는 「辨瘧濕喝脈證」, 「平脈法」, 「辨脈法」順으로 하였다. 方有執이 「辨瘧濕喝病證」을 六經病脈證并治 뒤로 두어 편제를 조정한 뜻은 「辨瘧濕喝病證」은 王叔和가 仲景의 『金匱要略·辨瘧濕喝病脈證治』 문장을 기술한 것으로, 篇內에 기술된 병증이 傷寒의 병증과 유사하여 변별을 요하지만, 仲景의 글보다 앞설 수 없다고 보고 뒤쪽에 두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方有執이 그 先後를 잘 분별한 적절한 배치라고 볼 수 있다. 脈法을 논하고 있는 「辨脈法」과 「平脈法」은 王叔和가 仲景의 말을 기술한 傳의 종류로써 經을 앞설 수 없다⁵⁸⁾고 보고 六經病脈證并治 뒤에 두었다. 또한 각각의 脈을 변

入于經, 留而不去則入于府, 非必風傷衛而寒傷營也.”

- 53) 張志聰. 傷寒論集注(張志聰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20. “夫脈緩爲風, 何以太陽篇云傷寒脈浮緩, 陽明太陰篇云傷寒脈浮而緩.”
- 54) 張志聰. 傷寒論集注(張志聰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20. “脈緊爲寒, 何以太陽篇云脈緊者必咽痛, 陽明篇云脈浮而緊者必潮熱.”
- 55) 張志聰. 傷寒論集注(張志聰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20. “須知陽邪傷陽, 陰邪傷陰, 正邪同類, 兩不相持, 其脈則緩, 寒邪傷陽, 熱邪傷陰, 邪正陰陽, 兩相搏擊, 其脈則緊, 不當拘執中風脈緩, 傷寒脈緊.”
- 56) 張志聰. 傷寒論集注(張志聰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

出版社. 1999. p.621. “如太陽病, 項背強几几, 無汗惡風, 傷寒汗出而渴, 傷寒五六日, 中風, 得病六七日, 脈遲浮弱, 惡風寒, 傷寒發熱, 其腹必滿, 自汗出, 婦人中風, 發熱惡寒, 陽明中風, 口苦咽乾, 發熱惡寒, 脈浮而緊, 陽明病脈浮而緊, 汗出不惡寒, 陽明病汗出多, 微惡寒等證, 例而推之, 皆爲風寒兩感, 何以不用大靑龍湯”

- 57) 陳大舜, 曾勇, 黃政德 編. 孟雄在 외 9人 譯. 各家學說. 서울. 대성의학사. 2001. pp.606-610.
- 58) 方有執. 傷寒論條辨(中國醫學大成續集 25).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p.313-314. “此篇以下, 皆叔和述仲景之言, 附己意以爲贊經之辭, 譬則翼馬, 傳類也. 篇日舊名平脈, 次第二而僭經右. 夫傳不可以先經, 論脈亦無先各脈而後平脈之理.”

별하는 「辨脈法」이 脈의 전반적인 상황과 기준을 논의한 「平脈法」보다 앞에 있을 수 없다고 보고 「平脈法」을 「辨脈法」보다 앞에 배치하고, 편명도 각각 「辨脈法上篇」, 「辨脈法下篇」이라고 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상황이나 원칙을 먼저 설명한 뒤에 구체적인 것을 말하는 방식으로 편제를 구성한 것으로서 그 편제 구성이 비교적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方有執은 六經病脈證并治 앞에 있던 「辨脈法」, 「平脈法」, 「傷寒例」, 「辨瘕濕喘脈證」 중 「傷寒例」만 유독 삭제하고서 대신 제8권 뒤에 「削傷寒例」 항목을 두어 「傷寒例」를 삭제하게 된 緣由를 설명하였고, 後人들이 그 緣由를 살필 수 있게 하였다. 「削傷寒例」에서는 例가 道의 쓰임을 행하는 바로 中風, 傷寒, 兩傷風寒과 같은 것이고, 義는 그 道를 행함에 있어서 마땅하게 하는 것으로, 中風일 때는 桂枝湯을 쓰고, 傷寒일 때는 麻黃湯을 쓰고, 兩傷風寒일 때는 大青龍湯을 쓰는 것과 같은 것으로, 例와 義는 서로를 필요로 하여 서로 떨어질 수 없는데, 成無己가 義를 버리고서 傷寒의 例만 말한 것이 어찌 仲景의 말이겠는가⁵⁹⁾하고 의문시하면서 後人들의 僞書로 판단하여 삭제하였다. 「傷寒例」는 春夏秋冬 四時 기후변화에 따른 外感熱病的 발생과 분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傷寒論』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글이지만, 方有執의 말대로 단지 例만 있고, 義가 없는 것은 仲景의 말이 아닐 가능성이 크므로 方有執이 「傷寒例」를 後人들의 僞書로 판단하여 삭제한 것은 仲景의 글을 중심으로 『傷寒論』의 條理를 잡아 나가겠다는 方有執의 편집방침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삭제와는 반대로 王叔和 舊本 『傷寒論』에

는 없었던 「辨溫病風溫雜病脈證并治」의 篇名을 새로이 설정하여 傷寒 외에 溫病·風溫 및 眞寒假熱·眞熱假寒·宿食 등의 雜病을 다루었는데, 이는 溫病 및 雜病을 傷寒과 분명하게 구별하면서도 『傷寒論』이 傷寒 외에도 溫病이나 雜病까지 포괄할 수 있는 辨證論治 서적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方有執의 적절한 편집이다. 또한 王叔和가 사용한 六經病, 霍亂病, 陰陽易, 不可脈證并治의 편명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내용에 있어서 조문들 간의 연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문들을 배치하였고, 특히 太陽病篇의 上中下는 風傷衛, 寒傷營, 風寒兩傷營衛 즉 三綱鼎立이라는 綱領을 기준으로 조문들을 재배치하였다. 이는 方有執이 조리 정연하지 않은 『傷寒論』을 三綱鼎立을 기준으로 條理를 세운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것으로 그 의의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뒤이어 方有執이 錯簡重訂한 방법을 조문의 이동, 추가, 삭제, 합병, 분리 등의 예시를 통해 살펴보았다. 조문의 이동예시를 통해서는 연관성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條理를 잡아나가는 方有執의 편집태도를 볼 수 있었고, 조문의 추가예시를 통해서는 經文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려는 그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으며, 조문의 삭제예시를 통해서는 경전에 얽매어 억지 해석을 하기보다는 현실 정황에 기인하여 경문을 읽어내려는 그의 실사구시적 태도를 볼 수 있었고, 합병의 예시를 통해서는 조문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파악하려는 그의 태도를 볼 수 있었으며, 조문 분리의 예시를 통해서는 한 조문 내에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내용간의 연계성이 떨어지면 연계성이 더 높은 다른 조문들과 함께 모아 살피는 등 조문을 대하는 그의 융통성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方有執이 기존 『傷寒論』의 조문을 좀 더 밀도있게 재배치하여 체계적이고 계통적인 『傷寒論』의 모습을 이루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顛倒錯亂된 『傷寒論』의 본 모습을 되찾기 위해 노력한 方有執의 작업은 긍정적 측면과 비판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로, 方有執은 목록이나 조문을 원래의 순서에서 이동시킴으로써 근본을 더 중시하

59) 方有執. 傷寒論條辨(中國醫學大成續集 25).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409. “醫道之方法具備, 自仲景始, 故世稱仲景方法之祖, 傷寒論乃其書也. 考求其方法, 義例明甚. 何謂例. 如中風一也, 傷寒二也, 兼風寒俱有而中傷三也. 三病不同, 以皆同在太陽, 故皆發汗. 發汗云者, 非以例言乎. 何謂義. 如發中風之發, 發之以桂枝湯, 發傷寒之發, 發之以麻黃湯, 發兼風寒俱有而中傷之發, 發之以大青龍湯. 一例發汗, 而三湯則不同, 非以其各有所宜之義乎. 然則方法者, 道之用也. 例者, 所以行其方法也. 義則其行而宜之謂是已. 是皆相須而不相離, 一致之謂道也. 嗚呼! 爲然哉. 其餘各屬, 悉皆類此, 條目具在也. 夫何無己之注解, 不省義例原屬方法中, 法外又獨有傷寒之例, 獨例傷寒而置諸各屬, 舍義而獨曰例, 豈仲景之言? 其爲後人之僞, 明亦甚矣.”

고 연관성이 더 높은 것들끼리 무리지음으로써 『傷寒論』 내용의 밀도를 더 높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方有執은 목록이나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傷寒論』이 좀 더 仲景 중심의 글들로 채워지기를 바랐던 것으로 보이며, 현실 상황에 기인하여 조문을 해석함으로써 의학의 실제 정황에 부합하려고 노력했다. 셋째로, 없는 목록을 필요에 의해 새로 신설함으로써 『傷寒論』이 傷寒 외에도 溫病이나 雜病까지 포괄할 수 있는 辨證論治 서적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傷寒論』에 드러나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 글자를 몇 자 추가함으로써 경문을 좀 더 명확하게 보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비판적인 측면을 編次와 三綱鼎立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첫째, 錯簡重訂을 반대하고 기존 『傷寒論』의 권위를 옹호하려는 張遂辰, 張志聰, 陳修園 등의 維護舊論派들은 仲景의 원문에 의지해야 하며, 原文을 세심하게 읽어볼 것을 당부했고, 한 글자나 한 구절도 이동시킬 수 없다고 하는 등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태도가 심화되면 原文을 대하는 유연함과 창의적인 생각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三綱鼎立에 대한 비판은 柯琴, 尤在涇, 張志聰의 글들을 통해 살필 수 있었다. 柯琴은 三綱鼎立說이 蛇足이며, 억지스럽고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함이 심하다고 하였고, 尤在涇은 衛가 병이 들되 營이 병이 들지 않는 경우는 있거니와 營이 병이 들되 衛가 병이 들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病機의인 측면에서 비판했다. 張志聰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病機와 脈象과 治療의 측면에서 三綱鼎立說이 仲景의 본뜻과 어긋남을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三綱鼎立에 대한 여러 註家들의 비판은 결국 醫學은 사람을 다루는 학문이므로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의학을 완성시킬 수 없다는 의미이며, 사람의 몸은 어느 하나의 방향으로 나타나거나 정해지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생산적인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方有執이 『傷寒論條辨』을 쓴 것은 『傷寒論』을 처음 접하는 초학자들에게 三綱鼎立을 기준으로 조문을 배치하거나 조문 사이의 긴밀한 연결을 고려한 배치를 통해 어느 정도 『傷寒論』을 읽는 하나의 방법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일정한 부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IV. 結 論

以上에서 王叔和가 편집한 『傷寒論』과 方有執이 편찬한 『傷寒論條辨』의 목록을 서로 비교하고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方有執이 王叔和 편집의 『傷寒論』의 編制를 변화시킨 것은 크게 編制의 이동, 추가, 삭제로 나뉘는데, 方有執이 「辨脈法」과 「平脈法」의 순서를 바꿔서 「平脈法」을 먼저 신고, 「辨脈法」을 뒤에 실은 것은 脈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피는 것이 특수한 상황을 변별하는 것보다 앞선다고 생각한 것으로 그 編制의 이동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傷寒 병증과의 유사성을 변별하기 위해 「辨瘧濕喝脈證」을 六經病脈證并治 뒤쪽에 배치한 것도 그 先後를 잘 변별한 적절한 배치라고 생각한다.

2. 「傷寒例」는 『傷寒論』의 총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傷寒論』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글이지만, 方有執이 이를 후인들의 僞書로 판단하여 삭제한 것은 仲景의 글을 중심으로 『傷寒論』의 條理를 잡아나간다는 方有執의 편집방침을 엿볼 수 있는 일면이며, 編制의 삭제와 반대로 「辨溫病風溫雜病脈證并治」 編制를 새로이 추가한 것은 溫病 및 雜病을 傷寒과 분명하게 구별하면서도 『傷寒論』이 傷寒 외에 溫病이나 雜病類의 질병까지도 포괄하는 辨證論治 서적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方有執의 적절한 편집이다.

3. 方有執의 錯簡重訂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傷寒論』 내용의 밀도를 더 높이고, 현실 상황에 기인하여 조문을 해석함으로써 의학의 실제 정황에 부합하려고 노력하며, 『傷寒論』이 傷寒 외에도 溫病이나 雜病까지 포괄할 수 있는 辨證論治 서적이라는 것을 드러내주며, 경문을 좀 더 명확하게 보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4. 方有執의 작업과 관련하여 維護舊論派의 編次

에 대한 비판은 原文을 대하는 유연함과 창의적인 생각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三綱鼎立에 대한 여러 註家들의 비판은 醫學이 사람을 다루는 학문이므로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의학을 완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면에서 생산적인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5.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方有執이 기존 『傷寒論』의 조문을 좀 더 밀도 있게 재배치하여 체계적이고 계통적인 『傷寒論』의 모습을 이루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하며, 여러 註家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傷寒論』을 처음 접하는 초학자들에게 『傷寒論條辨』은 『傷寒論』을 읽는 하나의 방법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일정한 부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References

1. Eun SM. Brief History of SanghanOnbyeong. Daejeon. Jumin. 2007.
殷哲玟. 傷寒溫病學史略. 대전. 주민출판사. 2007.
2. Chen DS, Ceng Y, Huang ZD ed.. Maeng WJ, et al. trans.. Theories of Different Schools. Seoul. Daesung Publishing Company. 2001.
陳大舜, 曾勇, 黃政德 編. 孟雄在 外 9人 譯. 各家學說. 서울. 대성의학사. 2001.
3. Nanjingzhongyixueyuan ed.. Shanghanlunyishi. Shanghai. Shanghai Science and Technology Press. 1992.
南京中醫學院 編著. 傷寒論譯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2.
4. Fang YZ. Shanghanluntiaobian (Zhongguoyixuedachengxuji vol.25). Shanghai. Shanghai Science and Technology Press. 2000.
方有執. 傷寒論條辨(中國醫學大成續集 25).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5. Moon JJ, et al. ed.. Precise Interpretation of Shanghanlun. Seoul. Publisher of Kyunghee Univ. 2000. p.256.
文濬典 外 6人 編. 傷寒論精解. 서울. 慶熙大學校 出版局. 2000. p.256.
6. Zang QZ. Zhangqingzishanghanlun (Zhongguoyixuedacheng vol.6). Shanghai. Shanghai Science and Technology Press. 1992.
張卿子. 張卿子傷寒論(中國醫學大成六).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2.
7. Zang ZC. Shanghanlunzongyin (Zhangzhicongyixuequanshu). Beijing. Zhongguozhongyiyaochubanshe. 1999.
張志聰. 傷寒論宗印(張志聰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8. Chen XY. (Dazidianju) Chenxiuyuanishuqishierzhong. Taipei. Wenguangtushuyouxiangongsi. 1964.
陳修園. (大字斷句)陳修園醫書七十二種.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64.
9. Ke Qin ed.. Shanghanlaisuji. Shanghai. Shanghai Science and Technology Press. 1978.
柯琴 編撰.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10. You ZJ. Shanghanguanzhuji. Shanghai. Shanghai Science and Technology Press. 1978.
尤在涇 注. 傷寒貫珠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11. Yang YG. How Fangyouzhi repeatedly correcting the error. Zhongyiyaoxuebao. 1988. 2.
楊運高. 方有執是怎樣錯簡重訂的. 中醫藥學報. 1988. 2.
12. Shen MN. Roughly discuss Shanghanluntiaobian. Guangxizhongyiyao. 1983.
沈敏南. 略論『傷寒論條辨』. 廣西中醫藥. 1983.
13. Zhuo Qun. Fangyouzhi and Shanghanluntiaobian. Tianjinzhongyixueyuanxuebao. 1984.
卓群. 方有執與『傷寒論條辨』. 天津中醫學院學報.

1984.

14. Jang WC. Review on argument about three planks of the triangular position.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6. 19(2).

張祐彰. 三綱鼎立 論爭에 대한 소고. 대한한의학 원전학회지. 2006. 19(2).

